

‘렉라자’ 유럽 품목허가 권고… 유한양행, 글로벌 진출 ‘훈풍’

존슨앤드존슨 ‘리브리반트’ 병용 미국 이어 유럽시장 첫 진출 사례
렉라자 美 판권 820억 4분기 수령 누적 기술료는 1.5억 달러 달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앞세워 유럽 의약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허가 권고 의견을 받았다. 렉라자가 최종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국산 항암제가 미국 의약품 시장에 이어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은 앞서 올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실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9월부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는데, 렉라자 미국 제품명은 ‘라즈클루즈’이며 한 달 복용분인 30정 기준, 약가는 약 1만8000달러(약 2400만원)이다. 1년 약가는 21만6000달러(약 2억9000만원) 수준으로, 경쟁 약물인 오시머티닙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렉라자가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유한양행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렉라자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는 존슨앤드존슨이 갖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국에 대해서만 권리가 제한됐다.

다만, 유한양행은 올해 4분기 중 렉

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스톤으로 6000만달러(약 82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한양행이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받은 누적 기술료는 2020년 3500만달러, 2021년 6500만 달러 등 총 1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존슨앤드존슨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향후 연간 50억달러(약 6조 64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 매출액은 1조5717억원, 영업이익은 667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0.5%,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31.3% 증가한 규모다. 누적 순이익은 7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9% 커졌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매출 증가와 라이선스 수익 증가 등이 매출 개선을 견인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한양행

의 분기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라이선스 수익은 1013억원으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87억원, 11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 3분기에만 981억7000만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96배 이상 급증했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지난 2015년 7월 국내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와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비임상 및 임상연구 등에 집중했다. 이후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렉라자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안센에 기술수출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왔다.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출발점에 놓고 해외 시장 공략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0월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온은 202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기술수출, 매년 2개 이상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진입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이 고객 참여형 문화 행사로 ‘살롱 설화수’를 새롭게 기획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고객참여 프로그램 ‘살롱 설화수’ 운영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12월 11일부터 3일간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살롱 설화수’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살롱 설화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고객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내면과 외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소통하며 영감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살롱 설화수에서는 ‘청록화’의 신선이 플로리스트가 대담을 진행한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플라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담에서는 작가의 플라워 장식을 통해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북촌 설화수의 집 공간도 플라워 장식물로 채워졌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홀리데이 리스’ 만들기 교실도 마련됐다.

‘살롱 설화수’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설화수 홈페이지 내 ‘북촌 설화수의 집’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번째 살롱 설화수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하반기 ESG 경영평가 최고 등급 ‘AA’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로부터 ‘2024년 하반기 ESG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에스티, 원료의약품 사업회사 에스티팜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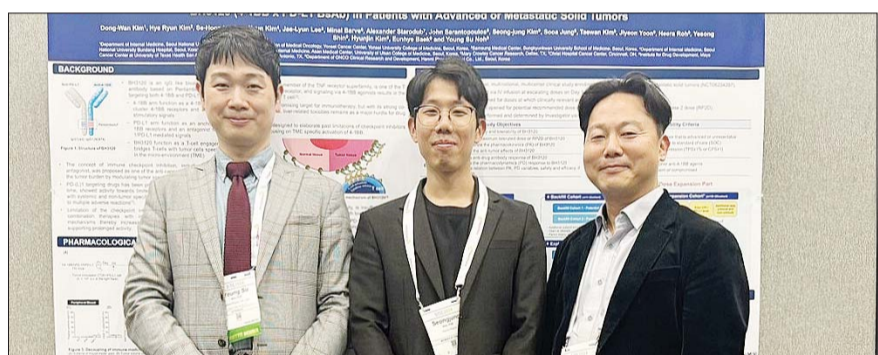
서스틴베스트는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한다. 또 상장사 자산규모별로 ESG 베스트 기업 100곳을 함께 발표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3사도 A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 기업 그룹에서 ESG 베스트 기업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해당 그룹 30개 기업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표적항암+면역세포 활성화 ‘항암신약’ 순항

췌서 ‘BH3120’ 성과·임상경과 발표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적용



지난 6일~10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에서 한미약품 ONCO임상팀의 노영수 이사(왼쪽부터)와 김성중 연구원, 북경한미약품의 이경우 연구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에서 면역항암제 ‘BH3120’ 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항암신약이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 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한미약품은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본격화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

BH3120 단독 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BH3120 임상 1상 책임 연구자인 김동완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해당 연구 차세대 면역항암제의 혁신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임상 1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데, 특히 기존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H3120은 단독 요법뿐 아니라, 기존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요법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도 계획돼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H3120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을 평가하는 임상 1상 시험계획(IND) 변경을 승인받았고 오는 2025년 초에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온콜로지(항암)임상팀 노영수 이사는 “BH3120 임상은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면역항암제 영역에서 독자적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활용하는 한미의 첫 글로벌 임상 연구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바이컬러 “치아미백 간편 관리 하세요”

애경, 화이트닝 폴리셔 등 3종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뷰티 덴탈 브랜드 바이컬러에서 ‘치아미백 관리’ 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집에서 간편하게 치아 미백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들로, 원하는 미백 효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치약처럼 사용 가능한 ‘화이트닝 치아미백제’, ‘화이트닝 폴리셔’, ‘치아미백 스페셜 관리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화이트닝 치아미백제는 치아 미백 기능을 갖춘 유효성

분인 과산화수소를 함유해 누런 치아를 밝고 환하게 가꿔준다.

화이트닝 폴리셔는 치아에 딱 맞는 크기의 광택제로 해당 제품이 미백 치약 및 치아미백제의 도포와 밀착을 도와 치아 구석구석에 미백 효과를 전달한다. 또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밀랍한 실리콘 팁을 적용해 부드러운 치아 관리가 가능하다.

치아 미백 스페셜 관리 세트에는 미백 겔과 전용 마우스 피스가 담겼다. 미백 겔을 치아에 도포하고 전용 마우스 피스 착용한 뒤 30분간 사용 후 헹구면 된다.

/이청하 기자

센텔리안24, 뷰티컬리서 기획세트 출시

토탈 안티에이징·기미케어 2종

동국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컬리의 뷰티 전문 플랫폼인 뷰티컬리에서 ‘토탈 안티에이징 및 기미케어 기획세트’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트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 멜라캡처 기미애프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베스트 마데카 크림&스틱 기프트 기획세트’에는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마데카 크림스틱 크림 등이 담겼다. 이들 제품 모두 동국제약이 독자



센텔리안24 ‘베스트 마데카 크림&스틱 기프트 기획세트’
/동국제약

개발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획세트 2종은 뷰티컬리 입점 2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특별 할인기간인 3만1900원이 적용된다.

/이청하 기자